



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31일 | Global Asset Research

Quant Comment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종목

엔비디아 실적 편중화 심화, 미국 실적모멘텀 글로벌 최상위, 반도체 및 전기장비, 기술하드웨어, 바이오가 실적 상향 상위, 반면 상호미디어, 에너지, 자동차, 음식료는 하위

Nvidia: 8/26 장 마감 후, 어닝 서프라이즈, 정규장 주가 -1.6% → 시간외 주가 +4.7%
매출 \$96.22억(YoY +106%, 컨센 \$92.07B 대비 +4.5% 서프라이즈). 총이익률 75.0%(YoY +260bp). 데이터센터 \$89.0B(총매출 92.7%, YoY +117%) - 하이퍼스케일러 \$49B·그외(소버린AI, 온프레미스 등) \$40B(YoY +138%)으로 처음으로 오픈웨이트 관련 비중이 절반에 근접. FCF \$21.3B. Q3 가이던스 \$108.0B(컨센 \$103.8B 대비 +4.0%). AWS 200만 GPU 추가 발주. FY2028 성장률 70% 전망

Salesforce: 8/26 장 마감 후,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 +8.6%

Agentforce AI 에이전트 플랫폼 수익 급증이 핵심 드라이버. Q2 FY2027 매출·EPS 컨센서스 대폭 상회. FY2027 가이던스 상향

Marvell Technology: 8/27 장 마감 후, 매출·EPS 비트, 주가 -3%

매출 \$2.73B(컨센 \$2.71B 상회). EPS \$0.94(컨센 \$0.93 상회). Amazon Trainium·Google TPU 커스텀 ASIC 수주 지속 증가. 주가 하락은 기대치 선반영 부담

Intuit: - 8/26 장 마감 후, 가이던스 대폭 미스, 주가 -12.1%

Q4 FY2026 매출 \$4.4B(+14%, 컨센 상회). EPS \$4.03(컨센 \$3.59 상회). 그러나 FY2027 가이던스 - EPS \$20.12~20.36(컨센 \$20.60 하회), 매출 \$23.28~23.51B(컨센 \$24.7B 대폭 하회). DIY 세금 소프트웨어 고객 이탈 가속 + AI 대체 위협으로 성장 재설정

글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

반도체(1주 +0.25%, 1개월 +0.56%, Nvidia +13.2, Marvell +5.9, Intel +4.8, Analog Devices +2.5, Advantest +1.7, Tokyo Electron +1.6, AMD +1.2, MediaTek +1.1, ASML +0.6, Lam Research +0.5, KLA +0.4)

전 업종 중 압도적 1위. Nvidia의 FY2027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영향으로 시가총액 대비 1주 변화율 +0.25%는 2위 업종의 6배 수준. 이번 주 글로벌 이익 상향의 사실상 전부를 반도체 업종이 생성. Marvell은 커스텀 ASIC 수주 확대, Intel은 18A 수율 개선과 Apple 협력 지속이 반영

기술하드웨어(1주 +0.04%, 1개월 +0.48%, 삼성우선주 +2.0, Dell +1.1, Seagate +1.0, 삼성전자 +0.8, Hon Hai +0.6)

1개월 변화율은 반도체에 이어 누적 2위. AI 서버·스토리지 수요가 구조적으로 안착. Seagate는 AI 콜드스토리지 HDD 수요, 삼성전자는 2분기 확정실적 이후 DS 부문 추정치 상향이 지속 반영

전자장비·부품(1주 +0.04%, 1개월 +0.28%, Analog Devices +2.5, Delta Electronics +0.6, Vertiv +0.6, Corning +0.5, Amphenol +0.4)

Analog Devices가 업종 상향을 주도. 산업용·자동차용 아날로그 반도체 사이클 회복이 2주 연속 확인. AI 서버 커넥터의 Amphenol, 전력변환의 Delta Electronics, 광부품의 Corning 모두 낙수효과 수혜 지속

바이오텍(1주 +0.04%, 1개월 +0.25%, Gilead +3.2, Regeneron +0.2, Amgen +0.1)

Gilead가 압도적으로 주도. Biktary의 HIV 시장 확대와 레나카파비르 예방 임상 데이터가 3개월 +84.5%의 누적 상향을 견인. 빅파마 M&A 물결도 업종 전반의 추정치를 지지

에쿼티 리츠 (1주 +0.04%, 1개월 +0.10%, Welltower +0.1, Equinix +0.3, Prologis +0.1, American Tower +0.01)

AI 데이터센터 코로케이션 수요로 Equinix가 주도. 커버리지 내 모든 종목이 양수로 업종 방향성이 균일

금속·광물 (1주 +0.04%, 1개월 +0.08%, Freeport-McMoRan +2.7, Glencore +2.7, Barrick +0.4, Newmont +0.4, BHP -2.0)

Freeport-McMoRan과 Glencore가 구리·복합광물 수요 강세로 주도. 데이터센터 1기당 구리 27~33톤이라는 구조적 수요가 배경. 반면 BHP는 철광석 수요 부진으로 역방향. 중국 부동산 고정자산투자 부진이 직접 반영

하향 업종은

상호미디어(1주 -0.02%, 1개월 -0.12%, Meta -0.7, NetEase -0.3, Tencent -0.1, Alphabet +0.04)

유일하게 뚜렷한 하향 업종. 1개월 -0.12%로 커버리지 전 업종 중 최약. Meta는 AI CAPEX 급증이 FCF를 압박하며 이익 추정치가 3주 연속 하향. Tencent는 중국 게임 허가 지연과 AI 콘텐츠 규제가 광고 수익화 전망을 제약. Alphabet만 클라우드 성장이 CAPEX 부담을 일부 상쇄하며 +0.04로 소폭 양수

원유·가스(1주 -0.01%, 1개월 +0.28%, EOG -1.4, Suncor -0.8, Petrobras -0.4, BP -0.4, Aramco -0.3, Valero +5.1, Marathon +2.2, Phillips 66 +1.6)

미국이 이란에 군사 대신 경제 압박으로 전환하며 국제유가가 하락해 E&P 생산기업의 추정치가 일제히 하향. 반면 Valero-Marathon-Phillips 66 등 정제업체는 원유 조달 원가 하락으로 마진이 개선되며 역방향 강세. E&P와 정제업체 간 분화가 이번 주에도 유지. 1개월 기준 +0.28%로 여전히 양수인 것은 정제 부문의 기여가 크기 때문

자동차 (1주 -0.01%, 1개월 +0.16%, Tesla -2.3, GM +0.9, BYD +0.8, Toyota +0.7)

Tesla가 업종 하향을 단독으로 견인. 2분기 EPS 미스 이후 자동차 마진 회복 경로가 여전히 불명확하고 FCF 마이너스가 지속되는 점이 추정치를 압박. 반면 Toyota-GM-BYD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회복 기대로 양수를 유지

음식료(1주 -0.01%, 1개월 +0.09%, Nestlé +0.4, Mondelez +0.2)

커버리지 내 대형주는 소폭 양수지만 업종 전체는 하향. 고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소비자의 PB 전환이 지속되며 브랜드 식품의 판매량 성장이 제약받는 구조가 배경

실적 추정치 상향 주요 종목은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마벨테크, 발레로에너지, 인텔, 보잉, 길리어드사이언스, 프리포트맥모란, 아날로그디바이스, 시놉시스

하향 주요 종목은 인투잇, 테슬라, 프로수스, BHP, 도어다쉬, 샤오미, 인피네온, 메타, 선커, 노보노디스크, 쉘컴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수급

코스피 3Q26F OP는 266조원(1W -0.2%, 1M -3.6%, QoQ +16.4%). 2026E OP는 989조원(1W +0.0%, 1M +3.0%, YoY +230%). **3Q26F OP 상향 업종**은 정유, 해운, 조선, 가전, 전기장비, 기계. **하향 업종**은 화학, 유틸리티, 건설, 게임, 비철금속, 음식료, 2차전지

국내 대형주 리비전 특징주(3Q26F OP)는 삼성전기, 삼성SDI, SK, LG전자, HMM, SK이노베이션, HD현대, S-Oil 상향. LG에너지솔루션, 고려아연, 한국전력, 미래에셋증권, LG화학, 한국항공우주, 에코프로비엠 하향

3Q26F OP 상향 주요 종목은 로보티즈, 삼성SDI, SK이노베이션, S-Oil, 한미약품, 후성, 코스모신소재, 씨젠, 비에이치아이, 심텍, GS, HMM, HD현대, 카카오페이, 코스맥스, 하나마이크론, 풍산, LS, 삼성전기, 일진전기, SK, 팬오션, 한국가스공사, 티에스이, LG전자, NHN, 현대해상, 한국콜마, 대한전선, DN오토모티브, 한화, 유진테크, 대덕전자, DB하이텍, 카카오, 효성티앤씨, 코스메카코리아, 효성중공업

외국인은 자사주 매입이 외국인 매도로 연결되는 전통적인 공식이 나타난 가운데 반도체 매도에 집중. 코스피 9.2조원 순매도, 코스닥 4,800억원 순매수. **순매수 상위 업종**은 가전, 기술하드웨어, 전기장비, 항공, 유통. **순매도 상위 업종**은 반도체, 건설, 자동차, 유틸리티, 통신

연기금은 중소형주와 가치주를 매수. 코스피 1,700억원 순매도, 코스닥 500억원 순매수.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비철금속, 철강, 건설, 항공, 2차전지. **연기금 순매도 상위 업종**은 상위 업종은 증권, 자동차, 정유, 방산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 실적발표)

8.31일(월) ★

미국 8월 시카고 PMI(오전 9시 45분 ET), 한국 8월 수출입 통계(오전 9시 KST). 반도체 수출 회복 강도 확인

9.1일(화)

미국 8월 ISM 제조업 PMI(오전 10시 ET), 미국 7월 건설지출

2일(수)

미국 8월 ADP 민간고용(오전 8시 15분 ET), 미국 7월 공장주문

3일(목)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오전 8시 30분 ET), 미국 8월 ISM 서비스업 PMI(오전 10시 ET)

4일(금) ★★★ 금주 최대 이벤트

미국 8월 비농업 고용(오전 8시 30분 ET), BLS 공식 확인. 7월 -2.3만 명 충격 이후 8월 회복 여부와 워시 의장의 잭슨홀 ‘인플레이션 우려’ 발언 이후 첫 번째 노동시장 데이터로 9월 FOMC 경로를 결정할 핵심

다음 주 이후 주요 이벤트는 9월 7일 미국 노동절 휴장, 한국 정상 개장, 9월 11일 미국 8월 CPI, 9월 15~16일 SEP 점도표가 포함된 FOMC, 9월 19~21일 한국 추석 연휴, 10월 초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

Quant Comment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72%로 7bp 상승했고 VIX는 5.1% 하락, SOX는 1.22% 하락, 달러인덱스는 99.7로 0.5% 상승하며 안전선폰호가 부각

캐빈 워시는 첫 잭슨홀 연설에서 “underlying inflation이 의미 있게 개선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명시. 엔비디아 호실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시장에 비교적 큰 부담으로 반영

금주 최대 변수는 9월 4일 비농업 고용. 7월 -2.3만 명 충격 이후 8월 고용이 회복됐는지, 워시 의장이 잭슨홀에서 문을 열어놓은 9~10월 금리 인상이 데이터로 정당화되는지가 결정될 전망. 고용시장 부진이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

월요일 오전에는 반도체 수출액을 확인할 필요. 원화 강세 영향과 반도체 수출 증가율 둔화 가능성을 염두

AI H.W vs S.W의 실적 = 밸류에이션이 밸류에이션 공식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 중. 오히려 소프트웨어의 추세 반등 스토리에 집중해야 하드웨어 영역의 리레이팅이 가능한 구조

고금리 영향의 두 번째 국면에 진입한 만큼 금리에 대한 면역력이 높은 고배당주와 호실적 내수주를 찾는 데 주력할 필요